제29회 일본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강사: 이치카와 하야미(市川速水)

소속: 아사히 신문 서울지국장

주제: 왜 서울주재 특파원은 한국을 싫어하게 되는가.

일시: 2005년 11월 9일 (12 : 00 – 14 : 00)

<강연 내용>

서울 특파원으로 온지 약 2년 7개월 정도가 지났다. 그 동안 많은 동료들이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어 송별회를 하곤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나 한국이 좋아서 오게 되었는데, 돌아갈 때가 되어서는 정말 한국이 싫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런 경험을 하면서 자신은 과연 한국에 대해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역시 싫어하게 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역시 이것만은 싫다고 하는 것이 몇 가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스스로도 종종 이것만은 절대 싫다라고 하는 일이 몇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 기자들이 어떤 장관이나 대통령 같은 높은 사람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하는 일이 있다. 그런 경우에 질문 내용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이 굉장히 까다롭다. 일종의 시나리오를 미리 만드는 것인데, 한일 관계를 말할 때 특정인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든가 하는 식의 요청이 많아 어려움이 많다. 대단히 무리한 요청 때문에, 결국 질문은 지나치게 모호하거나 의미가 없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6자 회담의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식의 질문이 많은 것이다.

그렇지만 실제로 인터뷰를 하게 되면 시나리오와는 다르게 대통령이나 장관은 굉장히 직접적인 방식으로, 묻지 않아도 피하자고 했던 화제로 이야기를 돌려 말해주는 경우가 있다. 시나리오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얘기가 전개되는 것이다.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은 대답

하기 곤란하다고 하면 될 것을, 인터뷰 당사자는 전혀 의식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주위사람들이 과도하게 신경을 쓰며 준비하는 바람에 생긴 헤프닝이다. 이런 식의 사전준비, 의미없는 사전준비는 정말 싫다고 생각한다. 일본에서는 이런 시나리오 만들기를 한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저널리즘이 정치와 너무 친해진다고 할까, 정치와 지나치게 밀접한 교류를 하게 된다면, 역시 신문은 재미없어 질 것이고, 다시 사람들은 정치에 무관심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일관계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크게 3가지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납치문제를 보면, 이것은 일본사회를 들썩이게 만든 굉장히 큰 일이었다. 왜냐하면, 전후 일본은 아시아를 향해 계속 사죄를 표하는 입장이었는데, 처음으로 한반도를 향해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은 일본의 반응이 너무 지나치다는 입장에서 일본의 납치문제 제기에 대해 상당히 반감을 표시하였다. 그에 대해 일본에서는 한국이 남북관계를 위해 인권문제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식의 반감이 다시 생겨난 것이다. 그러자 한국은 다시 한반도의 분단은 일본의 탓이니, 일본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대응을 했다. 이런 어린아이들 싸움 같은 감정적 대응이 한일 간에 계속되고 있다.

독도 문제의 경우에는 한국은 일본이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실제로 이 문제가 한참 부각되고 있을 때에, 반기문 장관의 기자회견 등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피해줄 것을 요청 받기도 했다. 일본의 고이즈미 수상의 경우, 독도와 관련된 질문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되는 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시간이 없이 그대로 발표를 하고 사라진 적이 있다. 이런 것이 바른 방법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역시 사전 시나리오로 질문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었다.

마지막으로, 교과서 문제인데, 사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2년 정도 전에 일본이 점점 위헌한 나라가 되고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교과서 문제는 단순히 후쇼사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전체의 의식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만, 한국과 일본이 둘 다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그것을 서로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한국은 한국인 스스로도 어떻게 될 지 모르는 나라이다. 그러나 그런 이 나라가 싫지는 않다. 국회에서 몸 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일본에서는 흥미롭게 다루고 있지만, 한국은 어디까지나 언론이 존중되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이런 한국을 믿고, 한국이 싫어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자 한다.